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량의 변화: 어머니의 취업지위와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

이윤주¹⁾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과 그 변화를 파악하고, 어머니의 취업지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와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아동 1,254명의 주중 일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야간수면, 개인유지활동,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은 감소하였고 개별 돌봄·교육활동, 실내외놀이, 미디어 이용 시간은 증가하였다. 둘째, 아동이 보육·교육기관, 개별 돌봄·교육활동, 실외놀이에 보낸 시간의 변화량은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셋째, 아동이 개인유지활동, 보육·교육기관, 개별 돌봄·교육활동, 실내놀이에 보낸 시간의 변화량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의 일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부모교육 및 놀봄학교 확대시행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초등학교 입학, 생활시간 변화, 어머니의 취업지위, 거주지역

I. 서론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이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중요한 전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대다수의 아동은 자유롭고 비형식적인 놀이 중심의 유아보육·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아동의 건강이나 가정 특성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등하원을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아동은 정해진 시간에 등교하여 대체로 오후 1시까지 정규수업을 듣는다. 이후에 방과후수업을 듣거나 돌봄교실(놀봄교실)에 있을 수도 있고, 바로 귀가하거나 학원과 같은 사

1)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즉,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유아보육·교육기관 또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변화하면서 아동의 일상도 크게 달라짐을 예상할 수 있다.

생활시간을 분석하는 것은 누군가의 일상세계를 이해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대부분의 생활시간 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진미정·이윤주, 2010). 생활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시간일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일과를 기억했다가 자세히 회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동이 스스로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대화에서 아이가 TV를 너무 많이 본다든가, 바깥놀이를 적게 한다든가, 잠을 적게 잔다는 등 시간의 맥락에서 아동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익숙하다(Hofferth & Sandberg, 2001). 시간이라는 단위로 아동에게 노출된 다양한 자극과 사회적 경험의 양을 가능해볼 수 있어서이다. 아동이 유아보육·교육기관 또는 학교에서 보낸 시간뿐만 아니라 실내외 놀이, 수면, 학습 등에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고 초등학교 입학으로 얼마나 변화하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더 하거나 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제3차년도 조사(2010년)부터 보호자에게 10가지 내외의 활동을 제시하고 아동이 이를 얼마 동안 했는지 일상적인 하루를 회고하며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과 그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에 대한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이들의 일상을 다룬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지는 않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을 유아기와 학령기의 분기점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하듯(김경은, 2012),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이어지는 아동의 일상을 연속선상에 두고 비교분석하는 접근은 드문 실정이다. 김문정·이예진·도남희(2018)는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만 6세 아동의 일상을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주중에 평균 9시간 47분 정도 밤잠을 자고, 개인유지활동에 1시간 23분 정도를 썼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보낸 시간은 7시간 10분 정도였다. 사교육 등 개별 돌봄·교육활동에 보낸 시간은 1시간 7분 정도였고, 미디어를 이용한 시간은 대략 1시간 28분 정도였다. 실내놀이에는 약 1시간 52분, 실외놀이에는 1시간 14분 정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아동이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김은설·배윤진·조숙인 외, 2016), 이들은 주중에 평균 9시간 38분 정도 밤잠을 자고, 개인유지활동에 약 1시간 19분을 썼으며, 학교에서 5시간 34분 정도 보냈다. 개별 돌봄·교육활동에 대략 2시간 30분을 소요했고, 미디어 이용 시간은 1시간 23분 정도였다. 실내놀이에는 1시간 10분, 외출을 포함한 실외놀이에는 1시간 10분 가량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정리하면, 초등학교 입학의 계기로 야간수면, 개인유지활동, 유아보육·교육기관 또는 학교활동, 미디어 이용 시간은 감소하고 개별 돌봄·교육활동, 실내놀이, 실외놀이 시간은 증가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연구결과로는 이 양상이 유의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가장 일상적인 주중의 생활시간을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각 시점에서의 생활시간을 재확인하고 변화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큰 변화이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그동안 해온 부모역할에 자녀의 학교생활 파악, 학습지도, 사교육 관리 등 교육적 측면이 추가된다(박인숙·이재림, 2023). 또한 학교 후 이루어지는 방과후수업이나 돌봄교실 등 공적 돌봄서비스는 신청자격이 제한적이고 과소공급되는 경향이 있어(이재희·김근진, 2019)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자녀교육이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미덕이자 책임이라는 모성이데올로기와 부모가 더 많은 시간적·금전적 자원을 투입해서 자녀를 세세하게 관리하는 집중적인 양육행동(Kim, 2023; Lareau, 2011)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상술한 변화에 대응하며 아동과 가족의 적응을 도모하는 것은 대체로 어머니의 일이 된다. 그 결과, 이 시기에 취업 또는 비취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어머니도 있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와 미디어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휴직이나 퇴직을 통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어머니(오현정·황원경, 2019; 통계청, 2023)나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어머니들도 있다(김은설·배운진·조숙인 외, 2016).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에 대한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는 입학 전과 후라는 단일 시점에서의 생활시간을 분석하고 있어서, 어머니의 취업지위 역시 이분화해서 다루어졌다. 예를 들면, 한국아동패널을 분석한 김문정·이예진·도남희(2018)는 일하는 어머니의 만 6세 아동은 일하지 않는 어머니의 아동보다 밤잠, 기본생활, 실외놀이 시간이 짧고 반일제 이상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밝혔고, 이러한 차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 7세가 되어서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김은설·배운진·조숙인 외, 201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 역시 어머니의 취업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즉, 유아보육·교육기관 또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소폭이 취업모의 아동과 비취업모의 아동에게서 동일할 것인지 혹은 초등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일을 새로 시작한 어머니의 아동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취업 또는 비취업 상태를 지속하는 유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서 이탈하거나 재취업하는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특징으로,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과 어머니의 취업지위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일상이 거주하는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아동 스스로 원거리를 이동하기는 매우 어렵고, 거주지역마다 경제력, 보육·교육여건, 보조금, 밀집도, 돌봄·교육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최순미·차승은·이은진, 2023)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진철, 2022)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사교육 시장의 규모나 수요, 교육환경과 분위기가 차이를 지적하면서 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학교 외 학습시간이 유의하게 길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아동의 수면시간(김유라·이경숙, 2011)과 식사시간(김경희, 2011) 등에서 거주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다. 반면,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의 생활시간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기초분석보고서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만 6세인 한국아동패널 아동 중 대도시 거주 아동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거주 아동보다 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이 짧고, 사교육 시간과 실내놀이 시간이 긴 경향이 있었고(이정림·김길숙·송신영 외, 2015), 만 7세에는 이와 같은 활동 외에 밤잠, 실외놀이 시간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김은설·배운진·조숙인 외, 2016). 하지만 이는 각 시점에서 아동의 생활시간을 거주지역에 따라 비교한 것이기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생활시간의 변화량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실증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일상생활 및 변화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취업지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동일한 아동을 조사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초등학교 전이기 문헌과 생활시간 문헌의 가교를 놓아, 초등학교 전이기에 있는 아동의 생활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아동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과 그 변화량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거주지역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제7차년도(2014년) 자료와 제8차년도(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7차년도 조사는 2008년에 출생한 패널 아동이 만 6세가 되는 해에 실시되었고, 제8차년도 조사는 패널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해에 실시되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1,620명, 1,598명이었고(김은설·배운진·조숙인 외, 2016; 이정림·김길숙·송신영 외, 2015), 두 조사에 모두 참여한 아동은 총 1,555명이었다. 이 중에서 제8차년도 조사가 실시된 해에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부모가 모두 기혼이며, 분석에 포함된 변수 및 종단 가중치에 결측값이 없는 1,254명을 최종 표본으로 확정하였다. 이들은 제7차년도 조사 당시 평균 만 75.07개월($SD=1.41$, 범위: 72-79), 제8차년도 조사 당시 평균 만 87.86개월($SD=1.52$; 범위: 84-92)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아동의 생활시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의 생활시간은 보호자가 아동의 가장 일상적인 하루를 회상하여 설문지에 제시된 10가지 내외의 활동을 얼마 동안 했는지 30분 단위로 응답한 자료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고려하여 조사내용을 조정하기 때문에, 제7차년도 조사에 포함된 일과활동 문항과 제8차년도 조사에 포함된 일과활동 문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제7차년도 조사에서는 집에서 자는 낮잠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았지만, 제8차년도 조사에서는 취학 연령대 아동의 낮잠은 거의 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활동은 삭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을 총체적이고 간명하게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면서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물어본 문항을 가지고 총 7가지 활동으로 재편해 분석하였다(〈표 1〉 참고).

〈표 1〉 아동의 생활시간 변수를 구성하는 일과활동

일과활동	제7차년도 조사	제8차년도 조사
야간수면	① 밤잠시간	① 수면시간(밤)
개인유지 활동	⑧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⑪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보육·교육 기관	②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등)과 같은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	②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등하교 시간, 교내 방과후 교실 포함)
개별 돌봄·교육 활동	③ 개인, 그룹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기관(특기교육학원 또는 보습학원 및 문화센터)을 통한 교육시간, ④ 시청각 프로그램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③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및 돌봄을 받는 시간(학원,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 인터넷 강의, 문화센터, 공공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④ 학교,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숙제를 하는 시간
실내놀이	⑥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⑤ 책 읽는 시간, ⑧ 장난감 놀이, 자유롭게 어슬렁거리기 등의 실내 활동
실외놀이	⑦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⑨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놀이터 등 교육비 지출이 없는 활동), ⑩ 가족이나 또래와 함께 하는 외출(친구/친척 집 방문 포함)
미디어 이용	⑤ TV 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⑥ TV 시청시간, ⑦ 미디어기기 사용시간 (인터넷, 게임기, 휴대폰, 태블릿PC 등)

각 조사에서 물어본 활동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예: 야간수면)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활동과 합쳐서 분석하였다.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문항(예: 기타 시간)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두 조사에서 모두 수집한 주중 응답을 사용해 아동의 주요 활동 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나. 어머니의 취업지위

본 연구의 첫 번째 설명변수는 어머니의 취업지위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조사 당시 어머니의 취업/학업 여부와 함께 취업 중이라고 답한 어머니들의 재직 여부를 조사하였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조사년도 별로 ‘재직 중인 취업자(또는 학업과 병행 중인 자)’를 취업자로, ‘휴직 중인 취업자’와 ‘미취업/미학업자’를 합쳐 비취업자로 분류하였다. 휴직자는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있긴 하나 실제 근무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취업자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두 시점에서의 취업지위 분류를 교차하여, 두 번의 조사에서 계속 비취업인 응답을 기준 집단으로 코딩하였고 ‘계속 취업’, ‘취업 중이었다가 비취업’, ‘비취업이었다가 취업’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두

차례 조사에서 ‘학업 중인 응답자’라고 답한 12개의 사례는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 거주지역

본 연구의 두 번째 설명변수는 패널 아동의 거주지역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조사 당시 패널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① 대도시, ② 읍/면 지역, ③ 중소도시로 구분하였다. 대도시에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시가 해당되고, 읍/면 지역과 중소도시는 전국 6개 도와 제주도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에 대한 응답을 ‘대도시’와 ‘중소도시/읍면지역’으로 재분류한 뒤, 두 번의 조사에서 계속 중소도시/읍면지역에 거주한 응답을 0으로, 계속 대도시에 거주한 응답을 1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두 차례 조사에서 거주지역이 변경된 29개의 사례는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과 어떤 지역이 관련성을 보이는지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

라. 통제변수

상술한 변수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생활시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동 및 가족 특성 변수를 분석 모델에 포함해 통제하였다(김문정·이예진·도남희, 2018; 김미숙·배화옥, 2022; 김유라·이경숙, 2011; 정하나·김유미, 2015). 첫 번째 통제변수인 아동의 성별은 여아는 1, 남아는 0으로 코딩하였다. 두 번째 통제변수는 어머니의 연령으로, 제7차년도 조사 당시 어머니의 만 연령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통제변수는 부모 각각의 최종학력이다. 각 조사년도 별로 부모의 최종학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① 무학”에서부터 “④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응답과 나머지 응답(“⑤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부터 “⑦ 대학원 졸업”)을 묶어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해당하는 응답을 1로,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에 해당하는 응답을 0으로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다섯 번째 통제변수는 패널 아동과 부모의 동거 여부이다. 각 조사년도 별로 패널 아동과 부모의 동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①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음”이라고 답한 응답과 나머지 응답(“②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음”, “③ 엄마와만 함께 살고 있음”, “④ 아빠와만 함께 살고 있음”)을 묶어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을 1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0으로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여섯 번째 통제변수는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제7차년도 조사 당시 패널 아동 가구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가구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을 만원 단위로 측정한 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에서는

이를 백만 원 단위로 조정해 계수가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였다. 마지막 통제변수인 가구 내 아동의 수는 제7차년도 조사 당시 패널 아동을 포함해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의 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뒤, 초등학교 입학 전후 각 시점에서 아동의 생활시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두 시점 간 변화량은 입학 후 측정값에서 입학 전 측정값을 뺀 차이값으로 계산하였고,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ANOVA(Analysis of variance) 및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관계성을 탐색하였다. 마찬가지로 거주지역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관련 변수를 통제한 뒤 어머니의 취업지위 및 거주지역과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위계적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가중치가 적용된 상태에서 생활시간 유형별로 이루어졌고, 모든 분석에는 STATA가 사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1.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값과 상관관계 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1,254)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										
2	-0.22*	-									
3	-0.21*	-0.10*	-								
4	0.02	-0.07*	-0.02	-							
5	0.02	0.01	-0.01	0.02	-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6	0.03	-0.05	-0.01	0.04	-0.01	-					
7	0.12*	-0.04	-0.05	0.01	-0.04	0.04	-				
8	0.05	0.03	-0.04	0.02	-0.05	0.08*	0.52*	-			
9	-0.01	-0.01	-0.02	0.07*	-0.02	-0.00	-0.05	-0.01	-		
10	0.26*	0.07*	-0.09*	-0.02	0.06*	0.11*	0.25*	0.20*	-0.01	-	
11	-0.01	-0.07*	0.05	-0.04	0.05	0.08*	-0.08*	-0.11*	-0.00	-0.04	-
12	0.04	0.05	-0.05	-0.05	-0.04	0.03	-0.02	0.02	-0.04	0.05	0.06*
13	-0.01	0.05	-0.02	-0.12*	-0.04	0.05	-0.01	0.03	0.02	0.07*	-0.03
14	-0.11*	-0.07*	0.02	0.09*	-0.00	-0.04	-0.01	-0.03	-0.04	-0.05	-0.07*
15	0.11*	-0.02	0.01	0.07*	0.01	-0.02	0.02	0.03	-0.00	0.07*	0.04
16	0.01	0.01	-0.01	-0.03	0.01	0.03	0.07*	0.07*	0.05	0.01	-0.03
17	-0.07*	0.09*	-0.05	-0.06*	0.03	-0.01	0.00	0.00	-0.02	-0.03	-0.02
18	0.01	-0.02	0.05	0.02	0.01	0.01	-0.12*	-0.11*	0.05	-0.10*	0.08*
<i>M</i>	0.33	0.09	0.08	0.42	0.49	36.77	0.71	0.74	0.95	4.47	2.16
<i>SD</i>	0.47	0.29	0.27	0.49	0.50	3.58	0.45	0.44	0.21	1.91	0.65

주. 1=어머니의 취업지위 중 계속 취업, 2=어머니의 취업지위 중 취업→비취업, 3=어머니의 취업지위 중 비취업→취업, 4=거주지역(1:대도시), 5=아동성별(1:여아), 6=어머니의 최종학력(1:대학교 졸업 이상), 8=아버지의 최종학력(1:대학교 졸업 이상), 9=아동과 부모의 동거여부(1:동거), 10=월평균 가구소득, 11=가구 내 아동의 수, 12=야간수면시간 변화량, 13=개인유지활동 시간 변화량, 14=보육·교육기관 시간 변화량, 15=개별 돌봄·교육활동 시간 변화량, 16=실내놀이시간 변화량, 17=실외놀이시간 변화량, 18=미디어 이용 시간 변화량. 생활시간 변화량간의 상관계수는 분량 제한으로 생략하였으나, 필요 시 저자에게 요청 바람.

* $p < .05$.

2.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

〈표 3〉은 초등학교 입학 전과 후 아동의 생활시간이 어떠한지 보여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만 6세 아동은 평일에 평균 9.78시간(9시간 47분, $SD=0.68$) 잠을 자고, 개인유지활동에 평균 1.37시간(1시간 22분; $SD=0.57$)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육·교육기관에서 평균 7.13시간(7시간 8분; $SD=1.31$)을, 개별 돌봄·교육활동에 평균 1.01시간($SD=0.84$)을 보냈다. 실내놀이에 평균 1.89시간(1시간 53분; $SD=1.01$), 실외놀이에 평균 1.09시간(1시간 5분; $SD=0.73$)을 보냈고 미디어를 이용한 시간은 평균 1.22시간(1시간 13분; $SD=0.74$)이었다.

이들이 만 7세가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평일 평균 9.62시간(9시간 37분; $SD=0.63$) 잠을 잤고, 개인유지활동을 위해 평균 1.32시간(1시간 19분; $SD=0.49$)을 보

났다. 초등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5.60시간(5시간 36분; $SD=1.08$), 개별 돌봄·교육활동을 하며 보내는 시간은 평균 2.46시간(2시간 27분; $SD=1.21$)이었다. 그리고 실내놀이를 하며 보낸 시간은 평균 2.20시간(2시간 12분; $SD=1.11$), 실외놀이를 하며 보낸 시간은 평균 1.16시간(1시간 9분; $SD=0.92$)이었으며, 미디어를 이용한 시간은 평균 1.39시간(1시간 23분; $SD=0.97$)이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측정한 주요 일과활동 시간에서 입학하기 전에 측정한 주요 일과활동 시간을 뺀 값을 <표 3>의 우측에 제시하고, 해당 수치가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보았다. 분석 결과, 앞서 언급한 7가지 활동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비해 입학 후 평일 야간수면 시간은 평균 약 0.16시간(10분; $t=-7.67$, $p<.001$), 개인유지활동을 하며 보낸 시간은 평균 0.05시간(3분; $t=-2.70$, $p<.01$) 정도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 역시 초등학교 입학 전에 비해 입학 후 평균 1.53시간(1시간 32분) 정도 감소하였다 ($t=-36.20$, $p<.001$). 이 세 가지 활동은 평균 시간량뿐만 아니라 표준편차 역시 감소하여, 아동의 성장에 필수적·의무적 성격을 띤 활동시간은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축소·균등화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개별 돌봄·교육활동에 소요한 시간은 평균 1.45시간(1시간 27분; $t=38.70$, $p<.001$), 실내놀이에 보낸 시간은 평균 약 0.31시간(19분; $t=9.25$, $p<.001$), 실외놀이에 보낸 시간은 평균 0.07시간(4분; $t=2.34$, $p<.05$), 미디어를 이용한 시간은 약 0.18시간(11분; $t=6.45$, $p<.001$)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네 가지 활동은 평균 시간량뿐 아니라 표준편차도 증가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자율재량적 성격을 띤 활동시간은 확대·다양화됨을 알 수 있다.

<표 3>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

($N=1,254$, 단위: 시간)

일과활동	입학 전	입학 후	변화량	
	$M(SD)$	$M(SD)$	$M(SD)$	t
야간수면	9.78(0.68)	9.62(0.63)	-0.16(0.76)	-7.67***
개인유지활동	1.37(0.57)	1.32(0.49)	-0.05(0.64)	-2.70**
보육·교육기관	7.13(1.31)	5.60(1.08)	-1.53(1.50)	-36.20***
개별 돌봄·교육활동	1.01(0.84)	2.46(1.21)	1.45(1.33)	38.70***
실내놀이	1.89(1.01)	2.20(1.11)	0.31(1.20)	9.25***
실외놀이	1.09(0.73)	1.16(0.92)	0.07(1.02)	2.34*
미디어 이용	1.22(0.74)	1.39(0.97)	0.18(0.97)	6.45***

* $p<.05$, ** $p<.01$, *** $p<.001$.

3. 어머니의 취업지위와 거주지역에 따른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 시간 변화량

〈표 4〉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아동의 야간수면 시간량은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감소량에서의 유형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70$). 개인유지활동 시간량 역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감소하였고, 어머니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만 소폭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F=1.07$). 아동이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량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8.51, p<.001$).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하지 않은 아동은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량이 평균 6.74시간(6시간 44분; $SD=1.23$)에서 5.39시간(5시간 23분; $SD=0.92$)으로 약 1.34시간(1시간 21분) 정도 줄었다. 이는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하던 아동에게서 확인된 1.76시간(1시간 45분; 입학 전 7.64시간(7시간 38분) → 입학 후 5.88시간(5시간 53분)) 및 초등학교 입학 이후 어머니가 일을 그만둔 아동에게서 확인된 1.84시간(1시간 50분; 입학 전 7.47시간(7시간 28분) → 입학 후 5.63시간(5시간 37분))보다 유의하게 작은 수치이다. 비취업모의 아동은 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의 변화량 역시 다소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 돌봄·교육활동 시간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크게 늘어나는 양상에서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67, p<.001$).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은 아동은 개별 돌봄·교육활동 시간이 1.32시간(1시간 19분; $SD=1.28$) 증가하였으나,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한 아동은 1.66시간(1시간 40분; $SD=1.38$) 증가하여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었거나 일을 다시 시작한 아동도 개별 돌봄·교육활동에 보낸 시간은 각각 1.37시간(1시간 22분; $SD=1.23$), 1.50시간(1시간 30분; $SD=1.41$) 증가하였다. 아동이 실내놀이를 하며 보낸 시간은 초등학교 입학 후 증가하였으나,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0.09$). 아동의 실외놀이 시간이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양상은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다가 그만둔 아동의 실외놀이 시간은 각각 0.10시간(6분; $SD=1.07$), 0.36시간(22분; $SD=1.08$) 증가한 반면, 어머니가 계속 일을 했거나 새로 취업하게 된 아동의 실외놀이 시간은 각각 약 0.03시간(2분; $SD=0.92$), 0.09시간(5분; $SD=0.92$)

감소하였다. 여기에서 유의한 차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입학 후 그만둔 집단(22분 증가)과 입학 후 일을 한 집단(2분 감소 혹은 5분 감소)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미디어를 이용한 시간은 초등학교 입학 전보다 입학 후 소폭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취업지위 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1.54$).

〈표 5〉는 거주지역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에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아동의 야간수면 시간량이 감소하는 양상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t=1.89$). 개인유지활동을 위한 시간량의 경우, 중소도시/읍면지역 거주 아동에게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보다 입학 후 소폭 증가하였으나(평균 0.02시간(1분), $SD=0.63$), 대도시 거주 아동에게서는 평균 0.14시간(8분; $SD=0.65$) 감소하였다. 이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20$, $p<.001$). 아동이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량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 역시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29$, $p<.01$). 중소도시/읍면지역에 거주한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량이 평균 7.24시간(7시간 14분; $SD=1.27$)에서 5.59시간(5시간 35분; $SD=1.08$)으로 1.65시간(1시간 39분) 정도 줄었다. 이는 대도시에 거주한 아동에게서 확인된 1.37시간(1시간 22분; 입학 전 7시간 → 입학 후 5.63시간(5시간 37분)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표 4〉 어머니의 취업지위 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

일과활동	어머니의 취업지위	입학 전 <i>M(SD)</i>	입학 후 <i>M(SD)</i>	변화량 <i>M(SD)</i>	<i>F</i>
야간 수면	계속 비취업	9.89(0.66)	9.70(0.62)	-0.19(0.75)	2.70
	계속 취업	9.62(0.68)	9.50(0.61)	-0.12(0.75)	
	취업→비취업	9.75(0.63)	9.70(0.72)	-0.05(0.80)	
	비취업→취업	9.80(0.76)	9.51(0.67)	-0.29(0.77)	
개인 유지 활동	계속 비취업	1.41(0.59)	1.35(0.50)	-0.06(0.67)	1.07
	계속 취업	1.33(0.53)	1.27(0.47)	-0.06(0.62)	
	취업→비취업	1.25(0.54)	1.30(0.50)	0.05(0.59)	
	비취업→취업	1.45(0.54)	1.35(0.55)	-0.09(0.64)	
보육·교육 기관	계속 비취업	6.74(1.23)	5.39(0.92)	-1.34(1.44)a	8.51***
	계속 취업	7.64(1.24)	5.88(1.17)	-1.76(1.55)b	
	취업→비취업	7.47(1.33)	5.63(1.05)	-1.84(1.48)b	
	비취업→취업	7.15(1.19)	5.75(1.39)	-1.41(1.54)ab	

일과활동	어머니의 취업지위	입학 전	입학 후	변화량	F
		M(SD)	M(SD)	M(SD)	
개별 돌봄·교육 활동	계속 비취업	1.06(0.89)	2.38(1.15)	1.32(1.28)b	5.67***
	계속 취업	0.97(0.77)	2.63(1.27)	1.66(1.38)a	
	취업→비취업	0.94(0.77)	2.31(1.21)	1.37(1.23)ab	
	비취업→취업	0.93(0.83)	2.42(1.30)	1.50(1.41)ab	
실내 놀이	계속 비취업	1.94(1.01)	2.24(1.07)	0.30(1.19)	0.09
	계속 취업	1.84(0.97)	2.17(1.15)	0.33(1.25)	
	취업→비취업	1.85(0.98)	2.19(1.27)	0.34(1.23)	
	비취업→취업	1.84(1.15)	2.12(1.05)	0.28(0.99)	
실외 놀이	계속 비취업	1.22(0.76)	1.32(0.95)	0.10(1.07)ab	5.66***
	계속 취업	0.93(0.63)	0.89(0.83)	-0.03(0.92)b	
	취업→비취업	0.95(0.74)	1.31(0.99)	0.36(1.08)a	
	비취업→취업	1.15(0.70)	1.05(0.79)	-0.09(0.92)b	
미디어 이용	계속 비취업	1.19(0.76)	1.34(0.95)	0.15(0.94)	1.54
	계속 취업	1.24(0.74)	1.43(0.94)	0.20(0.94)	
	취업→비취업	1.26(0.74)	1.38(1.00)	0.11(1.04)	
	비취업→취업	1.24(0.69)	1.59(1.11)	0.35(1.13)	

주. 계속 비취업(n=624), 계속 취업(n=410), 취업→비취업(n=118), 비취업→취업(n=102). 단위: 시간. F값은 변화량이 어머니의 취업지위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를 보여줌.

*** $p < .001$.

아동이 개별 돌봄·교육활동에 보낸 시간은 모든 거주지역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크게 늘어났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비해 입학 후 중소도시/읍면지역 거주 아동은 평균 1.37시간(1시간 22분; $SD=1.32$), 대도시 거주 아동은 평균 1.56시간(1시간 33분; $SD=1.32$) 증가하였는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53$, $p<.05$). 아동의 실내놀이 시간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거주지역에 따른 증가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1.03$). 아동의 실외놀이 시간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중소도시/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 0.12시간(7분; $SD=1.03$) 증가한 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 0.01시간(1분 미만; $SD=1.01$) 감소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23$, $p<.05$). 마지막으로,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초등학교 입학 전보다 입학 후 소폭 증가하였으며,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59$).

〈표 5〉 거주지역 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

일과활동	거주지역	입학 전 <i>M(SD)</i>	입학 후 <i>M(SD)</i>	변화량 <i>M(SD)</i>	<i>t</i>
야간수면	중소도시/읍면지역	9.80(0.67)	9.67(0.63)	-0.13(0.74)	1.89
	대도시	9.76(0.70)	9.55(0.64)	-0.21(0.78)	
개인유지활동	중소도시/읍면지역	1.29(0.54)	1.30(0.49)	0.02(0.63)	4.20***
	대도시	1.48(0.58)	1.34(0.50)	-0.14(0.65)	
보육·교육기관	중소도시/읍면지역	7.24(1.27)	5.59(1.08)	-1.65(1.43)	-3.29**
	대도시	7.00(1.34)	5.63(1.09)	-1.37(1.57)	
개별 돌봄·교육활동	중소도시/읍면지역	1.04(0.86)	2.41(1.19)	1.37(1.32)	-2.53*
	대도시	0.97(0.80)	2.53(1.24)	1.56(1.32)	
실내놀이	중소도시/읍면지역	1.77(0.88)	2.11(1.03)	0.34(1.08)	1.03
	대도시	2.05(1.14)	2.33(1.22)	0.27(1.34)	
실외놀이	중소도시/읍면지역	1.16(0.74)	1.28(0.91)	0.12(1.03)	2.23*
	대도시	1.00(0.69)	0.99(0.92)	-0.01(1.01)	
미디어 이용	중소도시/읍면지역	1.24(0.73)	1.41(0.94)	0.16(0.95)	-0.59
	대도시	1.18(0.76)	1.37(1.00)	0.19(0.99)	

주. 중소도시/읍면지역(n=723), 대도시(n=531). 단위: 시간. *t*값은 변화량이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를 보여줌.

* $p < .05$, *** $p < .001$.

4. 어머니의 취업지위 및 거주지역과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의 관계

〈표 6〉은 어머니의 취업지위 및 거주지역과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의 관계를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델에서 거주지역(1단계), 어머니의 취업지위(2단계)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인 최종모델을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야간수면시간의 감소량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지위와 거주지역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개인유지활동 시간량 역시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감소하였는데,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중소도시/읍면지역 거주 아동보다 대도시 거주 아동은 개인유지활동을 위한 시간이 약 0.15시간(9분) 정도 더 감소하였다($p < .01$).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도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감소하였는데, 어머니의 취업지위와 거주지역에 따른 변화

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어머니가 계속 비취업인 아동에 비해,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한 아동이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0.39시간(23분, $p<.01$), 어머니가 일을 그만둔 아동은 0.51시간(31분) 더 줄었다($p<.01$). 또한 중소도시/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은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0.26시간(15분) 정도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아동이 개별 돌봄·교육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초등학교 입학 전보다 입학 후에 증가하였는데, 어머니의 취업지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변화량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하지 않았던 아동에 비해,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한 아동은 개별 돌봄·교육활동 증가량이 0.36시간(21분) 정도 더 많았다($p<.001$). 또한 중소도시/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개별 돌봄·교육활동 증가량이 0.23시간(14분) 정도 더 많았다($p<.01$). 실내놀이 시간의 변화량은 아동의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중소도시/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실내놀이 시간량 증가폭이 약 0.19시간(11분) 정도 더 적었다($p<.05$). 실외놀이 시간의 변화량은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어머니가 계속 비취업인 아동에 비해,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한 아동은 실외놀이 시간이 0.16시간(9분) 정도 덜 증가하였고($p<.05$),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그만둔 아동은 0.27시간(16분) 정도 더 증가하였다($p<.05$). 거주지역에 따른 실외놀이 시간의 변화량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 변화량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지위 및 거주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표 6〉 어머니의 취업지위 및 거주지역과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변수	야간 수면 <i>B(S.E.)</i>	개인 유지활동 <i>B(S.E.)</i>	보육·교육기관 <i>B(S.E.)</i>	개별 돌봄·교육 활동 <i>B(S.E.)</i>	실내 놀이 <i>B(S.E.)</i>	실외 놀이 <i>B(S.E.)</i>	미디어 이용 <i>B(S.E.)</i>
1단계							
대도시 ^b	-0.04 (0.05)	-0.15** (0.04)	0.27** (0.10)	0.24** (0.09)	-0.19* (0.09)	-0.10 (0.07)	0.03 (0.06)
통제변수	○	○	○	○	○	○	○
<i>F</i>	3.29**	3.21**	2.53*	2.35*	2.65**	0.73	3.58***
<i>Adj. R</i> ²	0.02	0.02	0.01	0.01	0.02	0.00	0.02

변수	야간 수면 <i>B(S.E.)</i>	개인 유지활동 <i>B(S.E.)</i>	보육· 교육기관 <i>B(S.E.)</i>	개별 돌봄·교육 활동 <i>B(S.E.)</i>	실내 놀이 <i>B(S.E.)</i>	실외 놀이 <i>B(S.E.)</i>	미디어 이용 <i>B(S.E.)</i>
2단계							
계속 취업 ^a	0.03 (0.06)	0.01 (0.05)	-0.39** (0.11)	0.36*** (0.10)	0.01 (0.10)	-0.16* (0.08)	0.04 (0.07)
취업→ 비취업 ^a	0.12 (0.09)	0.10 (0.07)	-0.51** (0.18)	0.14 (0.14)	0.01 (0.14)	0.27* (0.13)	-0.09 (0.12)
비취업→ 취업 ^a	-0.14 (0.09)	-0.05 (0.09)	-0.12 (0.18)	0.08 (0.16)	0.11 (0.12)	-0.16 (0.12)	0.19 (0.12)
대도시 ^b	-0.04 (0.05)	-0.15** (0.04)	0.26** (0.10)	0.23** (0.09)	-0.19* (0.09)	-0.08 (0.07)	0.02 (0.06)
통제변수	○	○	○	○	○	○	○
<i>F</i>	2.77**	2.61**	3.31***	2.86***	2.01*	1.89*	2.96***
<i>Adj. R</i> ²	0.02	0.02	0.03	0.02	0.01	0.01	0.03
<i>N</i>	1,254						

주. ^a 기준집단: 계속 비취업, ^b 기준집단: 중소도시/읍면지역. 모든 분석모델에 포함된 통제변수로는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연령, 부모 각각의 최종학력, 아동과 부모의 동거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 내 아동의 수가 있으며, VIF는 2를 넘지 않았음.

* $p < .05$, ** $p < .01$, *** $p < .001$.

표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2단계 내 각각의 모델에서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성을 보인 통제변수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의 성별은 야간수면 및 개인유지활동 시간의 변화량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남아보다 여아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야간수면시간 감소량이 약 0.13시간(8분; $p < .05$), 개인유지활동시간의 감소량이 약 0.09시간(5분) 더 컸다($p < .05$). 월평균 가구소득은 아동의 개별 돌봄·교육활동시간 및 미디어 이용 시간의 변화량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가구소득이 백만 원 증가할수록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개별 돌봄·교육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증가폭이 0.05시간(3분) 정도 더 컸고($p < .05$),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의 증가폭이 0.04시간(2분) 정도 적었다($p < .01$). 가구 내 아동의 수는 야간수면 시간량의 변화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패널 가구 내 아동의 수가 늘어날수록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아동의 야간수면 시간이 약 0.11시간(7분) 덜 감소하였다($p < .01$). 이는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델부터 모든 변수를 투입한 최종 모델까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과 그 변화량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취업지위와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제7차년도 및 제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아동의 생활시간은 야간수면, 개인유지활동, 보육·교육기관, 개별 돌봄·교육활동, 실내놀이, 실외놀이, 미디어 이용 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일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이들은 주중 하루 평균 약 9시간 47분 잠을 자고, 1시간 22분 정도 개인유지활동을 했으며, 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 7시간 8분 정도 보냈다. 개별 돌봄·교육활동에 약 1시간, 실내놀이에 1시간 53분, 실외놀이에 1시간 5분을 보냈고, 1시간 13분 가량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이들은 주중 하루 평균 약 9시간 37분 잠을 자고, 1시간 19분 정도 개인유지활동을 했으며, 학교에서 약 5시간 36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개별 돌봄·교육활동에 2시간 27분, 실내놀이에 2시간 12분, 실외놀이에 1시간 9분을 보냈고, 1시간 23분 정도 미디어를 이용하였다. 이 수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패널을 분석했던 선행연구(김문정·이예진·도남희, 2018; 김은설·배운진·조숙인 외, 2016; 이정림·김길숙·송신영 외, 2015)의 결과와 비교적 유사하였다. 상술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야간수면, 개인유지활동, 보육·교육기관 등 아동에게 필수·의무적 활동 시간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개별 돌봄·교육활동, 실내외 놀이, 미디어 이용 등 자율재량적 활동 시간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평균 시간량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무적 활동 시간의 표준편차는 줄어들고 자율재량적 활동 시간의 표준편차는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필수·의무적 활동을 위한 시간은 축소·균등화되고 자율재량적 활동을 위한 시간은 확대·다양화, 개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시간변화량이 크게 나타난 활동은 보육·교육기관 활동(1시간 32분 감소)과 개별 돌봄·교육활동(1시간 27분 증가)이었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 하원하던 시간보다 입학 후 학교하는 시간이 앞당겨짐에 따라, 대다수의 아동이 개별 돌봄·교육활동을 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하루 중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던 개별 돌봄·교육활동이 입학 후에는 야간수면과 학교에서의 시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되었고, 자율재량적 활동 중에서는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되었다. 최순미·차승은·이은진(2023)은 만 10세 아동이 스스로 보고한 생활시간을 분석하면서, 학교 외 학습시간은 가

계소득과 유의한 선형적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전후 개별 돌봄·교육활동시간 증가와 월평균 가구소득의 정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의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 돌봄·교육활동 시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획된 시간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생애 초기부터 일상에 자리함을 시사한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시간변화량이 가장 작게 나타난 활동은 실외놀이였다(4분 증가). 실외놀이 시간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1시간 5분, 입학 후에는 1시간 9분이었는데, 이는 자율재량적 활동 중에서도 매우 짧은 시간에 해당한다. 비록 세계보건기구가 5-17세 아동의 하루 운동시간으로 권장한 최소 1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충족하였으나(정익중·박현선·최은영, 2016),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이변, (초)미세먼지 농도와 같은 대기질의 영향을 고려할 때 부모가 매일 1시간 이상 아동의 실외놀이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량은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계속 비취업 중인 어머니의 아동에 비해 계속 일을 한 어머니의 아동은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이 23분 더 감소했고, 개별 돌봄·교육활동에 보낸 시간이 21분 더 증가하였다.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의 감소량이 계속 취업 중인 어머니의 아동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 지낸 시간이 7시간 38분으로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후 개별 돌봄·교육활동에 보낸 시간도 2시간 38분으로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많았는데, 이로 인해 해당 활동시간의 증가량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계속 일을 하는 어머니에게 개별 돌봄·교육활동은 보육·교육기관의 하원 또는 하교 후 퇴근 전까지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선택지 중 하나이다. 개별 돌봄·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돌봄·교육의 내용과 장소, 시작 및 종료시간, 비용 등을 알아보고 아동의 관심사와의 적합성을 고려하는 등 상당한 정신노동을 수행하게 된다(Daminger, 2019). 개별 돌봄·교육활동이 시작된 뒤에도 아동의 적응 여부를 살피거나 스케줄을 관리하는 일이 지속되기에, 초등학교 전이기에 있는 취업모에게는 자녀돌봄과 관련된 정신노동과 자신의 유급노동을 균형있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계속 비취업 중인 어머니의 아동에 비해 계속 일을 한 어머니의 아동은 실외놀이 시간이 9분 적게 증가한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의 주중 실외놀이는 오후에 보호자가 대동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하는 어머니가 이를 매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계속 일하는 어머니의 아동은 주중

실외놀이에 평균 1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하는 어머니들은 아동의 주중 개별 돌봄·교육활동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실외놀이 시간의 증가는 미미한 양상을 고려하여, 주말에라도 충분한 실외놀이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계속 비취업 중인 어머니의 아동에 비해 입학 전에는 일을 했다가 입학 후 일을 그만둔 어머니의 아동은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이 31분 더 감소하였고 실외놀이 시간이 16분 더 증가하였다. 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이 7시간 28분으로 상당히 길었기에, 입학 전후로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의 감소량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실외놀이 시간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입학 후 일을 하지 않는 어머니가 오후에 아동의 실외놀이에 동행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일을 하지 않다가 입학 후 일을 하게 된 어머니의 아동은 입학 전후로 계속 비취업 중인 어머니의 아동과 생활시간 변화 양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추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일을 하게 된 어머니는 주중 하루 평균 6.72시간 근무하였다. 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계속 일을 한 어머니의 주중 하루 평균 근무시간인 7.57-7.60시간보다 짧았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일·가정 양립과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취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김영옥, 2014)를 고려할 때, 본 결과는 초등학교 입학 후 일을 시작한 어머니의 노동시간이 아주 길지 않아 아동의 일상이 비취업모 아동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 양상은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중소도시/읍면지역 거주 아동에 비해 대도시 거주 아동의 개인유지활동시간 감소폭은 9분 더 컸고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 감소폭은 15분 적었으며, 개별 돌봄·교육활동 시간은 14분 더 증가하였고 실내놀이 시간은 11분 적게 증가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 개인유지활동시간은 아동이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입기 등 기본생활을 하는 데 보낸 총 시간량을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활동 시간이 감소하였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상술한 활동 중 식사나 간식을 먹는 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아동이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간을 통해 아동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본 연구의 결과는 대도시 거주 아동이 이러한 효과를 누릴 기회가 더욱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소도시/읍면지역 거주 아동보다 대도시 거주 아동의 실내놀이 시간 증가량이 적게 나온 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아동이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감소하였는데, 중소도시/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에게서 감소폭이 적었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대도시 아동은 5시간 38분, 중소도시/읍면지역 아동은 5시간 35분으로 비교적 유사하였지만, 입학 전 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낸 시간이 대도시 아동은 7시간, 중소도시/읍면지역 아동은 7시간 14분으로 차이가 있었기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 개별 돌봄·교육활동 시간은 중소도시/읍면지역 거주 아동보다 대도시 거주 아동에게서 더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최순미·차승은·이은진, 2023),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이진철, 2022)와 일치하였다. 개별 돌봄·교육활동은 대체로 시작 및 종료 시간이 정해져있고, 해당 활동을 위해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개별 돌봄·교육활동 시간이 대도시 아동에게서 더욱 증가했다는 결과는 이들이 느끼는 방과 후 시간 운영에 대한 자유도나 자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개별 돌봄·교육활동 장소까지의 이동반경이 커진다면, 아동 및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시간부족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부모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아동의 생활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전이기 문헌 중 상당수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거나 입학한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연구인 상황에서(김창복·이신영, 2013; 신수희, 2019; 이수원, 2020; 이재희·김근진, 2019; 정정화·홍예지·이강이, 2019; 차영숙·유희정·강민정, 2017)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당사자인 아동의 입학 전후 일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동일한 아동을 매해 추적한 종단자료를 이용해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전이가 연속적인 아동의 일상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지위라는 미시적 환경과 거주지역이라는 거시적 환경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시간운영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실천적 의의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간과 그 변화량을 보여주는 본 결과를 참고한다면, 부모들은 아동의 일상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4년과 2015년에 수집된 것으로 시의성이 다소 부족하다. 아동 보육·교육 환경의 개선, 미디어 기기의 확산 등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나타난 변화가 아동의 생활시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늘날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생활시

간과 비교해보는 후속 연구를 계획해 볼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어머니가 계속 취업 중이라 하더라도, 두 시점에서의 직장 및 직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설명변수인 거주지역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모두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읍면지역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읍면 지역은 아닐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아동의 생활시간과 그 변화량을 확인하는 데에 그쳤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생활시간 변화량에서 동질적 특성을 보이는 집단을 분류해 보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아동의 생활시간은 30분 단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적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은 누락되거나 과소/과대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30분 미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 있으나 측정 도구에 내재된 한계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델은 설명력이 다소 낮은 편으로, 아동의 생활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늘봄학교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아동이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개별 돌봄·교육활동시간이 크게 늘어남을 확인하였는데,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난다면 보육·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 및 개별 돌봄·교육활동시간의 변화량이 크지 않아 초등학교 전이기를 수월하게 적응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돌봄·교육활동시간의 증가와 월평균 가계소득의 정적 관련성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난다면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의 일상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의 실외놀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추구하며, 교육활동 중 매일 실외놀이를 포함한 놀이시간을 갖도록 강조하고 있다(김완, 2023. 12. 7. 유치원 운동장).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체육 교과가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에 음악·미술 교과와 통합되어 있어, 다양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 최근 정부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에서 체육시

간을 늘리고 체육을 독립교과로 분리·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박순규, 2024. 4. 30. 문체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결정 환영), 본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이는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의 실외놀이시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중 실외놀이 시간이 적었던 취업모의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보육·교육기관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아동이 충분한 실외놀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공간의 확보, 보조인력/체육교과 전문인력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운동장을 개방한다거나 수업 후 쉬는 시간을 늘리는 등 아동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실외놀이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및 일상 변화와 관련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보육·교육기관이나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등에서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아동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부모의 양육불안을 해소하고 아동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지위에 따라 초등학교 전이기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가 달랐기에, 초등학교 입학 후 계속 일을 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 돌봄공백에 대한 대처)와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계획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육(예: 가족의 시간관리) 등 주제를 세분화해 초등학교 전이기 부모의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교육은 본 연구에서 확인한 거주지역의 차이를 고려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은(2012).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기돌봄경험에 따른 일상생활경험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3(6), 51-69.
- 김경희(2011). 서울 및 지방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 아동들의 식습관, 식행동 및 식품섭취빈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5(2), 180-190.
- 김문정·이예진·도남희(2018). 만 6세(만 5세반) 유아의 시간사용 유형화 연구. 아동과 권리, 22(2), 261-278.
- 김미숙·배화옥(2022).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1(1), 61-92.
- 김영옥(2014). 시간선택제 근로 정책이 여성고용률을 높이면. 젠더리뷰(봄호), 28-35.

- 김원(2023, 12. 7.). 유치원 운동장. *호남교육신문*. <https://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79>
- 김유라·이경숙(2011). 학령기 아동의 전반적 수면실태, 수면문제행동, 비만과의 관련성 연구. *재활심리연구*, 18(2), 229-250.
-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창복·이신영(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319-350.
- 박순규(2024, 4. 30.). 문체부,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결정 환영. *더팩트*. <http://news.tf.co.kr/read/sports/2094933.htm>
- 박인숙·이재림(2023).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학교생활 파악과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의 관계: 양육역량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1(3), 17-30.
- 신수희(2019). 유아기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불안 척도 개발 연구. *아동과 권리*, 23(1), 87-109.
- 오현정·황원경(2019). 2019 한국 워킹맘보고서. 서울: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 이수원(2020).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전·후 어머니 경험 변화와 지원 요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819-835.
- 이재희·김근진(2019).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647-659.
- 이정림·김길숙·송신영·이예진·김진미·김소아·김신경(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철(2022). 학교 소재지에 따른 청소년의 사교육 시간 활용 격차: 공교육에 대한 태도의 조절효과 탐색. *지역사회학*, 23(1), 153-185.
- 정익중·박현선·최은영(2016). *아동권리지표 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정정화·홍예지·이강이(2019).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과 영향요인 및 결과요인 검증. *인간발달연구*, 26(4), 115-138.
- 정하나·김유미(2015).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과 생활시간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4(6), 741-753.
- 진미정·이윤주(2010).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 양태. *대한가정학회지*, 48(6), 43-56.
- 차영숙·유희정·강민정(2017).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로의 전이과정에서 어머니 경험에 대한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8), 1-27.

최순미·차승은·이은진(2023). 방과 후 시간 배분: 아동의 학습시간 및 게임시간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 *학교사회복지*, 64(4), 25-46.

통계청(2023).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대전: 통계청.

Daminger, A. (2019). The cognitive dimension of household lab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4(4), 609-633.

Hofferth, S., & Sandberg, J. (2001). How American children spend their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295-308.

Kim, C. (2023). The gendered implications of intensive parenting beliefs for life satisfaction: The case of South Korea. *Asian Women*, 39(4), 79-101.

Lareau, A. (2011).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with an update a decade later*. Oakland,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논문접수: 8월 5일 / 수정본 접수 9월 3일 / 게재 승인 9월 13일
- 교신저자: 이윤주,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yoonjoo@kookmin.ac.kr

Abstract

Children's Time Use and Its Changes Before and After Elementary School Entrance: Variations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and Residential Area

Yoonjoo Lee

This study examines how children spend their time before and after entering elementary school and whether this varies according to maternal employment status and residential area. These questions were addressed using the seventh and eigh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N = 1,254) and by analyzing children's time use on weekdays. We found that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children spent less time sleeping, on self-care, and at childcare centers/schools, while spending more time on individual care/educational activities, indoor and outdoor play, and media use. We also noted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changing patterns of time spent in childcare centers/schools and on individual care/educational activities and outdoor play based on maternal employment status, as well as in time spent on self-care, at childcare centers/schools, and on individual care/educational activities and indoor play based on residential area. Our findings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children's daily lives during their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nd have implications for parenting and Neulbom after-school programs.

Keywords: elementary school transition, changes in time use, maternal employment status, residential area